

문서번호	경영정책실 -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20. 12.
공개여부	공 개

팀원	팀장	실장	원장
시아덕	남여민	황호근	서경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0년 제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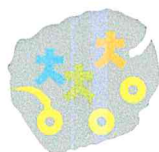


| 재 단 법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20년 제7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 재 단 법 인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개 요>

- 일 시 : 2020. 12. 24(목) 16:00 ~ 18:00
- 장 소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임원 : 8명(이사 8명)

- 이 사

- 김 용 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이사장) 참석
- 이 순 종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참석
- 박 영 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참석
- 권 경 주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대표이사 참석
- 진 상 현 드림학교 교장 참석
- 강 기 정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참석
- 전 벽 수 前보령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참석
- 김 장 옥 행복드림요양원 원장 참석

- 간 사

- 남 혜 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경영정책실 경영지원팀장

- 경 과 : 성원보고 ⇒  개최선언 ⇒  보고안건 ⇒  부의안건 심의·의결 ⇒ 기타 안건

○ 보고안건

1. 진흥원 제5대 원장 취임의 건

○ 부의안건

1.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 사업계획(안)
3.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4. 정관 일부개정(안)
5.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6.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7. 임금규정 일부개정(안)
8.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
9.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10. 공무원 파견 요청(안)

성원 보고

○ 간사 남혜진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7차 정기이사회 진행을 맡은 경영지원팀장 남혜진입니다.

연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사회 개회에 앞서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생략 -

오늘 이사회는 열 두분의 이사님 중 여덟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으므로 진흥원 정관 제 17조 의결 종족수를 충족하였기에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흥원 정관 제 11조 제 1항에 의거 김용찬 이사장님께서 2020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7차 정기 이사회를 주재해주시겠습니다.

○ 이사 진상현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혹시 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사님들 외 센터장 및 팀장님들도 배석하시는 건가요?

○ 이사장 김용찬

배석하신 분들은 사업 계획 등과 관련하여 설명해주시기 위해 오신거죠? 아마 예산안이나 차년도 사업 계획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답변주시기 위해서요.

○ 이사 진상현

그럼 그 해당 부분 있을 때 잠시 참석하는 건 몰라도, 더군다나 팀장님들도 같이 계신데, 같이 가야하는 건가 싶어 묻는 거예요. 혹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다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있을 때 제 스스로도 이사가 아닌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건 중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안건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사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물론 원장님께서 세부 사항을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니 그때 가서는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공무원 파견 요청안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은 안 계셔도 될 거 같네요. 어떠세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이사 권경주

네, 그렇다면 이사님들끼리 하고 설명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만 배석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대신 경영정책실장님은 배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사장 김용찬

당연히 그래야죠.

○ 이사 권경주

그 분들은 이사회 간사 역할을 해서 상관없지만, 그 외의 다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그럼 다들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 이사 일동

네, 동의합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부의안건 1안부터 3안까지는 여기 계신 센터장, 팀장님들이 계신 가운데 진행하고 그 이후의 안건들에 대해서는 퇴장하신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합니다.

○ 간사 남혜진

네, 이사장님. 보고의건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개회선언

○ 이사장 김용찬

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개회 선언을 아직 안했잖아요. 그렇죠? 개회 선언, 이제 시작해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석자 동의했고, 선언 보고 하셨나요?

○ 간사 남혜진

네, 했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그래요. 그럼 선언해주셨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제2020년도 제 7차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우리 이사님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금년도 정말 유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다들 지치셨을 거 같기도 하고 다들 연말에 3차 대유행이라는, 그런 안 좋은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이사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일년 동안 우리 청소년진흥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얼마나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사님들의 성원과 지혜와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이 한건이고 부의안건이 열 건인데요. 2021년 사업계획안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보고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건

○ 간사 남혜진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에 진흥원 제 5대 원장 취임의 건이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인사규정 제67조와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년 31일 원장 임기 만료 도래에 따라 인사규정 제 67조에 의거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나, 원장의 연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부재한 상태로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개채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채용은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20년 11월 10일, 이사 분들께서 심의·의결해주신 내용대로 부지사님께서 최종 임명 결정해주신 내용으로, 20년 11월 12일자로 제5대 원장님께서 임명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이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 이사 일동

없습니다.

부의안건

○ 이사장 김용찬

네, 그래요. 그럼 다음 안건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심의 안건인데요. 심의 안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건이 되겠습니다. 자, 힘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1부의안건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제2부의안건 2021년 사업계획안, 그리고 제3부의안건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해주시겠습니까?

○ 이사 일동

네, 동의합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동의해주셨으므로 이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혜진

네, 제1부의안건입니다.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총 55억 1천 1백 9십 8만 8천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상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예산 변동 내역 반영, 국도비 교부내역 변동 사항 반영으로 인한 조정, 타기관 사업 및 수익자 사업 일괄 변동 내역 반영, 기타 세부사업 간 변동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총 내역은 58억 4천 2백 2십 3만 5천원에서 3억 3천 24만 7천원 감액된 55억 1천 1백 9십 8만 8천원이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제가 별도 책자로 나눠드린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의안건 2021년 사업계획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정관 제18조의 1, 제 24조, 제36에 따라 2021년 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은 7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주요업무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요약·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사업계획서 총괄입니다. 2020년도 우수성과와 2021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우수성과로는 도, 시·군 공동 청소년게릴라 상담 운영, 1388콜기대회 등 시·군센터와 공동사업 실시 및 도, 시·군 청소년 전화 1388컨설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지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허브 기능 강화 내용이고, 두 번째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개최를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스스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및 환류의 장을 마련한 것을 우수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사업계획입니다.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 지원 강화 내용으로, 현장점검 및 1:1 맞춤형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등으로 시·군 센터가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리적 외상사건 발생 시 긴급대응체계 확보 및 청소년 트라우마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체계 구축 및 활성화내용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의 필수 연계기관 간 간담회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화하고, 일상적 네트워크 연계 구축으로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자립지원 사업 확대 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세상소통카드,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입시설명회, 수학여행, 체육대회, 모의창업캠프 등 수혜자 중심의 학업복귀 및 사회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현장 지원 중심 업무 강화입니다. 도내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및 지도자들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 지원 등 현장 지원기능 강화내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실행의 플랫폼 역할 강화로 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하고, 청소년 사회 참여 추진체계 마련을 통한 사업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부계획은 뒤쪽으로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3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부의안건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관 제18조의 1, 제24조, 예산회계규정 제9조에 따른 2021년 진흥원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인 2021년도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세입·세출예산총액은 57억 3천 5백 30만 3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57억 3천 5백 30만 3천원으로 그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4백3십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천 7백 1만 7천원, 국도비보조금이 34억 5천 94만 7천원, 도비출연금인 12억 2천 6백 6십 9만 5천원, 타기관 지원사업이 1억 2천 7백 2십 4만 7천원, 수익자지원 사업이 5천 1백 9십 4만원, 기금수입이 1천만원, 반납금 기타가 2억 7천 7백 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57억 3천 5백 30만 3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7억 7천 3백 2십 4만 8천원, 운영비가 3억 4천 1백 7십 3만 5천원, 사업비가 23억 7천 7백 8십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천 2백 2십 7만원, 반납금 기타로써 2억 3천 2

십 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변경 총괄요약본 및 세입·세출총괄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요.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됐든, 예산안이 됐든, 뭐든 좋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말씀 좀 해주세요. 없으시면 제가 선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올해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프라인으로 하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을 거 같다는 그런 추정을 해요. 그런데 올해 사업 계획이 많이 변경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답변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거 하나하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상황이 내년에도 계속 갈 거 같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어쨌든 백신을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에 참석했는데 안센이라는 회사에서 백신을 6백만명 분을 도입을 해서 계약을 했고, 그래서 2주 뒤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화이자 같은 경우는 천만명분을 계약을 해서 3분기부터 도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 다만, 그냥 그 회사들하고 접종 시기를 계속 당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총체적으로 한 4천 6백만명 분을 도입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으로는 내년 연말까지 가야 백신접종이 완료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3분기에 도입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사업 계획도 올해와 같이 또 온라인으로 많이 잡고, 오프라인으로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전환을 싹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 반영을 못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금년에 어떻게 했는지와 두 번째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두 가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이사 박영의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오프라인, 그러니까 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까지는 추진해왔던 것 같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지금 사업 내용을 대충 보니까 거의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사 박영의

네, 그래서 20년도에는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에는 상당히 우왕좌왕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결국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부터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될 것 같으니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보자, 어떤 이런 전환이 하반기부터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들은 거의 지금 제로,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혼합해서 운영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최소한의 인원으로 모이고 ZOOM으로 청소년들을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다 전환을 해서 저희가 2020년도는 지냈습니다. 2021년도에는 오히려 코로나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는 활동들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중요한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우왕좌왕 하지않고 처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거는 저희가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진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 그 반납금이 일월 국한되는 돈들이 다 교류 사업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항공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여서 일단 내년으로 추이를 좀 봐야할 거 같고요. 단지 올해 저희가 진행은 못했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하늘이 막힌다고 하면 세계의 청소년들과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만나고, 그래서 올해 광등성에서 유스 페스티벌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제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확실히 짜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 같고. 근데 사업계획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공간 운영하는 걸 어떻게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온라인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 작성해주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금년 예산에서 보니까 추경에서 3억 3천에서 감추경된 것이 이번에 사업 추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되고 반납을 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 이사 박영의

네,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액 도비 반납을 진행했어요.

○ 이사장 김용찬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면으로 하면 좋죠. 근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상황이 안 되어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좀 온라인으로 해서, 아니면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일부는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민을 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이사 진상현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한 2억 3천, 한 1억 정도 증액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외에 사업비가 줄고, 일반 운영비가 줄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래도 넉넉히 사용할 수 있나요?

○ 이사장 김용찬

일반 운영비와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죠? 사업비가 1억 7천정도 줄어든 거 같고.

○ 이사 진상현

네, 확실히 1억 7천, 약 2억이 줄은 건데.

○ 이사장 김용찬

사업이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냐고 여쭙는 겁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줄었겠지만.

○ 이사 박영의

네, 사실 이게 아까 교류 사업을 전혀 못해서 1억 2천 정도는 반납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지금 1억 7천이 깎였어요. 사실 저희 사업 파이도 작운데다가 이렇게 1억 7천이나 깎이니 사업의 규모가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 그건 다음 추경에서 좀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근데 그것이 해외 교류사업인데 그런 사업이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돈을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멋지게 하겠다, 라는 사업계획을 세워주셔야 정책관님께서도 검토를 하실 것 같아요.

○ 이사 진상현

사실 예산안을 미리 받아보고 더 자세히 검토를 했으면 감액 사유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걸 읽어보지 못하고 왔거든요.

○ 이사장 김용찬

아, 그렇구나. 미리 안드렸나요?

○ 이사 이순중

이번에 이사회 일정이 촉박해서 못드렸습니다.

○ 이사 진상현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된 질문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어렵더라도 우리 이사님들께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은 맞아요. 실무자들이 어려우시겠지만 매번하는 거니까 좀 서둘러서 이런 사업들을 미리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 이사 이순중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산을 올렸을 때보다 마지막 조정안에서 깎였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아, 의회에서?

○ 이사 이순중

네, 평소에도 쪽지예산으로 깎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상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서 채워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사업을 많이 못 해서 늘어난거죠?

○ 간사 남혜진

2020년 순세계잉여금 480만원 늘어난 거 말씀이신가요?

○ 이사 이순중

네, 2020년하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 수입을 보면, 약 1억 4천정도 늘어난 걸로 확인되네요.

○ 간사 남혜진

저희가 2019년도에 애초에 임금개편을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출연금 잔액 3억 2천 정도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내용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의 계획안이란 실제 진행하게 된 내용과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올해년도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 경영정책실에서 퇴사자들이 발생을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된 내용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사업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 사업계획 요약해놨는데 제가 언뜻 보니까 117쪽에 청소년의 달 기념 진로체험 문득 페스티벌한다고 제목이 붙여있고요. 사업예산 2천 5백 50만원 들어가 있고, 사업 내용이 모범 청소년 및 유성유공자 시상 등이다. 내용에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기획단 운영이 5백만원, 시상식이 1천만원, 운영비가 2천 3백만원인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문득 페스티벌이 뭐니까?

○ 이사 박영의

문득 페스티벌은 저희 충남에서 가장 변화가가 천안시 신부동이거든요. 그곳을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접하다. 뭐 이런 뜻의 페스티벌 제목이에요. 문득, 거리에서 문화를 접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은 제목인데 그 날 실제 저희가 보통 진로체험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에서 체험을 하는데 그런 일회용 부스가 아니고, 직접 상가에서, 상가 사장님들이 아이들에게 본인이 이걸 창업하거나 경영하는 걸 이야기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 상가를 체험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달 행사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상식은 최소한도로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자라고해서 기획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너무 간략하게만 적혀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저희 청소년진흥원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통해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성과가 있는 사업들은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성과가 없는 사업들은 다음에는 폐지하면서 신규사업 올리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지금 느낌상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실질적,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했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급자 중심의 사고방식보다는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사업 할 때마다 끝나고 나서 확실하게 나름대로의 리뷰를 하고, 성과평가를 자체적으로 좀 해보시고, 그럼 다음에 어떻게 보완·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면 조금씩 사업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사 권경주

네, 사업 14번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이게 2020년에는 안했고 2021년 신규사업 같은데 만약 개최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계획 상황에서 장소는 어디에 할건지, 그리고 대상인 충남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을 어떻게 섭외를 해서 할 수 있을지,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왜냐면 이 부분의 것들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쭙보려고 합니다.

○ 이사 박영의

저희가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진학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온라인으로 신청한 아이들한테 교재를 보내줬고요. 특히, 요즘 학교 밖 아이들이 대학을 가겠다는 욕구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여가부에서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활동한 걸 생활기록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려는 욕구들을 만족시키려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들은 들어오면 입시 컨설팅해주고 이런 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내년에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 이사 권경주

이거 오프라인이 아니고, 계속 온라인으로 하실 건가요?

○ 이사 박영의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열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있어서 오히려 그런 장점이 훨씬 좋았고, 또 시·군에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가 되니까 실제 몇 명 아이들이 들어오고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저희가 확인이 되어서 아마 내년도 21년도에도 뭐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인거 같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아이들이 입시설명회를 듣는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추가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사 권경주

네, 고맙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그 88페이지에 청소년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행사 홍보비로만 2백만원을 할 거 같은데요. 이게 좀 제목하고 산출기초와도 맞지 않고 이게 몇 백만원으로는 불가능해요. 저희도 플랫폼 구축하려면 몇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2백만원으로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 이사 이순중

2백만원이 정확한가요? 솔직히

○ 이사 박영의

뒤에 보면 도비 배정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또 있어요. 그거는 시설을 구축하라고 1억을 세워주신 금액이거든요. 그거랑 별개로 이것은 빅데이터,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청소년백서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백서 안에는 도내 청소년 인구가 몇 명이나, 각 시·군별로 몇 명이나, 시·군의 청소년 예산이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한눈에 책자로 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저희가 이번에 백서를 만들어 내는데요. 그런 작업들에 빅데이터를 더 모아서 내년에도 해보겠다고 사실 세운거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억이 감해지면서 예산에 맞춰 서로 쪼개다보니까 여기에 2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 담당자가 데이터를 보완하고 발로 뛰어야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좀 세워주시면 빅데이터 수집이 좀 원활할 거 같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제가 봐서는 이런 건 안 하는게 차라리 나아요. 빅데이터가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빅데이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다 끌어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발로 뛰어서 되는 건 아니예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좀 이상하네요. 아니면 충남도 청소년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 책자화한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뭔가 얘기가 되는데 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데 2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전혀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 이사 박영의

담당자가 꿈을 굉장히 크게 꾸어서요.

○ 이사 이순중

이 사업은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사 박영의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 플랫폼이 126쪽에 보면 1억 사업이 있어요.

○ 이사 이순중

아, 이걸 이거고.

○ 이사장 김용찬

아, 플랫폼 개발에 들어가 있네. 이걸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건가요?

○ 이사 박영의

그 안에 빅데이터를 조금 더 어떻게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말씀대로 2백만원에 비해 제목이 커서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그건 사업계획을 바꿔서 진행하세요.

○ 이사 박영의

네, 알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김장옥 이사님, 뭔가 질문이 있으신 거 같은데.

○ 이사 김장옥

아, 네. 지금 자료를 보다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행사 등이 많이 있는데 사업 수가 많은 건 좋지만, 그것들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 사업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아예 다 쪼개기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면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진로박람회같은 경우 학생들이 이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커져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로박람회와 체험과 이런 부분들을 쪼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사업이 너무 많으면 사실 일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이사장 김용찬

네, 그래요. 사업이 많으면 직원들이 피곤해요. 가짓수만큼 사업 하나하나 정산하랴, 사업개편하랴, 사업계획 만들고 그리고 직원들고 힘들고 성과내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되면 권한도 더 적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성문화센터, 대표적으로 세 개잖아요? 각각의 센터들에서 대표적인 사업을 통해 충남도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대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게 직원들의 피로도도 줄이면서 사업성과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그것은 아마 내부에서 직원들과 직접적인, 실질적인 토론을 거쳐서 그런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개로 줄일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정리하는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걸 할 때 밖에 나가서 우리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이런 거 해, 야, 충남도 상담복지센터 한번 가봐. 거기 이런 거 참 잘 돼 있어. 이런 게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고민을 많이들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당장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 이사 강기정

이사장님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저희가 경영정책실의 사업하고 그 활동진흥센터 사업하고 어느 정도는 겹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경영정책실은 본인의 업무에 집중해서 행정 업무 이런 거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경영정책실이 사업을 꼭 해야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결과 보고를 통해서 각 시·군별, 또는 센터별로 특정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진흥원에게 이상적이랄까,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싶지 않을까 싶고 아마 위원님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원장님 내지는 센터장님하고 깊게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 이사 권경주

지금 강기정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경영정책실에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재단기획실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의 큰 유형이 필수적인 사업이 있고, 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시기에 따라 필요한 긴급한 사안 또는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문화센터에다가 지정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은 상담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좀 통합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분의 것들은 경영정책실에서도 특별사업, 통합사업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아마 원에서 원장님께서 여기 직원들하고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문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정리를 해도 될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을 주셨는데 이러한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이사회 할 때 우리 진흥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세 가지 안은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드리면서 제안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안건으로 하여 저는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사 일동

네.

○ 이사장 김용찬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부의안건 2020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부의안건 2021년 사업계획안, 제3부의안건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소년진흥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부의하고자 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다음으로 제4부의안건 정관 일부개정이고, 제5부의안건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관련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혜진

네, 제 4부의안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충청남도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세부운영지침 송부에 따라 세부운영지침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노동자 이사제 도입을 권하는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촉직 비상임 이사로 노동자 이사를 추가하고, 노동자 이사 임명 절차 및 연임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자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제5부의안건 설명해주셨나요?

○ 간사 남혜진

이어서 제5부의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선 수탁기구를 수탁기관으로 조직도에 명확히하는 것과 경영정책실 팀장, 팀원 증원사항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증원사항 반영, 그리고 최상위직제를 신설하여 경영정책실장의 직위를 사무처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정관 제18조 및 제3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영정책실을 변경, 사무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경영정책실장 직위를 최상위직제인 사무처장으로 조정, 자격 및 급여수준을 함께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사무처 내의 경영지원팀을 경영전략팀과 재정예산팀으로 분리하고, 천안,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의 경우 수탁기관임을 명확히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명칭 또한 현재 충청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로

되어있는 기관을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로 변경하고, 성문화센터장은 지침 상으로는 센터장이나, 법인에서 수탁 받는 기관이므로 조직 운영상으론 팀장급으로 대우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무원인 센터장 직위에 대하여는 3년 단위의 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지침을 반영하여 임기제직위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조직도에 추가하고, 상담복지센터를 기존 5팀 체계에서 6팀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 드렸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두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노동자 이사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고 다른 공공기관들하고 똑같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 이사 김장욱

노동자이사라고 하면 직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사장 김용찬

직원들을 노동자라 하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이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선발 절차를 직접 만들고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죠? 규정에 따라서 우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나요?



○ 간사 남혜진

네, 비상임 이사와 동일합니다.

○ 이사장 김용찬

비상임 이사라고 되어 있나요?

○ 간사 남혜진

네, 절차는 비상임 이사와 같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원장님도 있고,

○ 이사 권경주

노동자 이사제라는 것이 명칭도 그렇고,

○ 이사장 김용찬

노동자를 이사로 추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을 이사로 추가시키자는 내용입니다.

○ 이사 권경주

평직원 이사제라고 하면 모를까 노동자 이사제는 좀 그렇네요. 그 5부의안건을 보니까 제가 좀 전에 경영정책실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후회스럽네요. 지금 아홉 명이 사업을 한다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무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아마 이직률이 좀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저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직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원내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보세요.

○ 이사 권경주

그 방법은 뭐 증원을 한다든가 할 것 같은데 왜 이게 경영정책실에서 사업을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센트럴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통합적인 사업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활동센터나 상담센터가 하는 일들을 조정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사 박영의

네, 사실 저희가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인데 만약 저기 그 권경주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청소년 사업이 두 개로 완전히 분리되어있어요.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사업, 그리고 일반 청소년을 위한 활동 사업, 이게 각각의 범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에서도 이게 아니다 청소년은 한 사람이고 애가 위기상담도 필요하고 활동도 필요한데,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원스톱 서비스를 해라해서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진흥원 안에서도 여전히 두 개의 센터로 분리되어 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출처도 다르고, 사업하는 내용도 다르고, 자격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니까 통합이 안돼서 지금처럼 우리 충청남도의 청소년 기본계획을 누가 짜느냐 하면 나는 상담해야 되요, 나는 활동해야 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에 통합 사업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양개의 센터가 여성가족부의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도지사님의 도정철학을 실현하도록 도의 사업을 실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팀이 꼭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경영정책실이라는 이름 아래에 정책기획팀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경영정책실에서 왜 사업을 하냐는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직제 및 정원을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뒤에 28페이지 보면 변경 전과 변경 후 그리고서 비고란에 보면, 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행정원 9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중에 세 명은 지금처럼 정책 사업하고 있는 전문직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행정원들은 채용할 때 통합채용을 하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저희 직제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행정원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순이기 때문에 28페이지 비고란에 ‘행정원 9’ 삭제해야 나중에 전문직을 뽑을 때도 무리가 없을 거 같거든요. 아니면 이 행정원을 두 개로 나눠서 세 명은 전문직 지도자로 명시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리가 아직 좀 남았어요. 일단은 비고란은 좀 삭제해서 행정원으로 오해받는 그런 상황들은 없애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사장 김용찬

아, 그럼 말씀은 지금 행정원 아홉은 삭제를 하자?

○ 이사 박영의

네네네

○ 이사장 김용찬

그럼 사무처장 1은 무엇으로 하나요?

○ 이사 박영의

아니요, 그냥 비고란을 삭제 하면.

○ 이사장 김용찬

비고란 자체를 삭제 하자?

○ 이사 박영의

네, 굳이. 그래서 그 직위별로 원장 1명, 사무처장 1명 다 나타나있는데, 굳이 비고에 행정원이라고 명시를 할 이유가 없어서 그 비고란만 삭제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 이사장 김용찬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그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해주시나요?

○ 이사 일동

네.

○ 이사장 김용찬

알겠습니다. 그럼 삭제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4부의안건, 5부의안건 정리해주시면 되고 그 28쪽에 비고란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도 될까요?

○ 이사 일동

네.

○ 이사장 김용찬

동의를 해주셨으므로 제4부의안건 정관 일부개정안, 제5부의안건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중에서 28쪽 그 변경 후 비고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됐음을 확인합니다.

○ 이사 박영의

어, 잠깐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7페이지 그 조직도에 보면 팀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 이사장 김용찬

뭐가요?

○ 이사 박영의

변경 후 조직도에 팀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올해 팀 이름을 좀 바꿀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팀 이름이 굳이 조직도에 없어도 사실은 되기 때문에 이 팀 이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 이사 이순중

그 팀 이름은 조직도에서 원칙적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팀 명시를 안해도 되요?

○ 이사 박영의

팀 이름을 넣어놓으면 이거를 내년 사업 운영 시 개정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기도 하고 변경 전에도 보면 팀이 기재가 안 되고 그냥 센터만 이렇게 크게 해놨거든요.

○ 이사 이순중

이게 어떻게 풀이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 조직도도 마찬가지지만 팀 업무를 수행할 특성화할 팀을 만들어서 명시해야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팀을 만들어 빼 쓰는 조직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서 팀 이름이 있어야 돼요.

○ 이사장 김용찬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 이사 박영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팀원이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꿀 거라서요.

○ 이사장 김용찬

명칭이 정해지면 바꿀 때 말씀하시라고요. 그걸 또 하려면 힘드니까.

○ 이사 박영의

아니면 지금처럼 팀을 신설하고 없애고 이런 거는 아니고 팀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차라리 규정에 당구장 표시하고, 때에 따라서 팀명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되죠?

○ 이사 이순중

규정인데 규정을 임의적으로 막 수정할 수 있고 그러면 안되고, 그건 다음 이사회에서 명칭을 바꾸면 되니까요.

○ 이사 권경주

이사회?

○ 이사 이순중

임의적으로 바꾼다 그거는 아니죠.

○ 이사 박영의

네, 알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안전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28쪽에 변경 후의 비고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네, 제6부의안전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남혜진

네, 제6호 부의안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12월 직급을 신설함에 따라 팀장 직무대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팀장이 결원일 시 팀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내용으로 바로 하위직 직급만이 직무대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시 팀장 공석 상황에서 해당 팀 팀원의 직무대리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의 승진 제한 요건 중 일부 요건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대비 오히려 직원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 지침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급규정에 승진의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 마찬가지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훈계 등 처분규정안 제정으로 감사위원회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훈계나 주의 등 관련 처분에 대한 자체 문책 규정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렵고, 미 제정에 따른 불이익으로 훈계사항을 중징계로 오히려 상향조정 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따라서, 금번 규정에 해당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임기제직위 직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인 천안, 흥성성문화센터장 직위는 임기제 계약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원장과 사무처장, 상담복지센터장, 활동진흥센터장, 성문화센터장의 경우, 연임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직원채용 자격요건에 통합되어 있는 원장을,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분리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경영정책실장 최상위직제 조정에 따라 채용자격요건을 상향조정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하시죠.

○ 이사 이순중

페이지 32페이지에 사무처장, 상담복지센터장, 활동진흥센터장, 성문화센터장 임기를 3년으로 한다 했죠?

○ 이사 박영의

네.

○ 이사 이순중

그러면 사무처장은 아직 뽑질 않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테고 현재 활동진흥센터장하고 상담복지센터장은 2년의 임기를 가지고 금년에 들어왔죠?

○ 이사 박영의

네.

○ 이사 이순중

그러면 그 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사 박영의

네. 그분들은 적용이 되지 않고 다음 임기 2년 끝나셔야 적용되는 걸로.

○ 이사장 김용찬

관련해서 명확하게 상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요. 현재 센터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든지, 아니면 다음 센터장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오해의 소지도 없고, 나중에 이견도 없습니다.

○ 이사 이순중

왜냐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해요.

○ 이사 권경주

저는 임기제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에 대해서 정년으로 한다면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거죠? 3월이면 6월 30일까지, 9월생이면 12월 31일까지요.

○ 이사 박영의

그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이사 강기정

인사 규정을 개정할 때는 직원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동의를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이 불이익의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의제기 사항이 될 수 있으니 검토는 하셨죠? 그런 절차가 있는지 해서요.

○ 이사 박영의
네, 있습니다.

○ 이사 이순중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계 중에 정직, 감봉 기간이 늘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었나요?

○ 간사 남혜진

내용을 봐주시면 제14조의 3에 팀장 직위 부여의 제한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아예 팀장직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호 같은 경우도 채용관련 비위사실이 적발된 자의 경우는 기간 제약 내용 없이 팀장직 부여 자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 이사 이순중

아니, 그게 아니고. 아아 직위의 제한.

○ 간사 남혜진

네, 그리고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그래요. 또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아까 그 말씀은 조직 인사 지침을 반영한 것이니 의결해도 될까요?

○ 이사 일동

네.

○ 이사장 김용찬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중 67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임명이 되어있는 상담복지센터장과 활동진흥센터장, 또는 성문화센터장, 기존 임명되어 있는 사람들은 임기 3년 적용을 제외하고 차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제7부의안건 임금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제안 설명 해주세요.

○ 간사 남혜진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9년 12월 임금규정 전부개정 시 일부수당 삭제에 대한 직원 동의 절차를 누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임금계약 체결 거부인원이 발생하였고, 2020년 금년에 전 직원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상위직제 신설에 따른 사무처장 급여수준 조정 필요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는 교통보조비의 복원입니다. 2019년 임금규정 전부개정 시 근로자 동의절차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으로 수당 삭제로 기본급 하한액 인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연봉 인상 효과가 미비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업 지침상의 연봉기준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는 수당 삭제에 따른 임금 감소 결과만 초래했기 때문에 기본급 하한액이 인상되지도 않고, 수당 삭제에 대한 임금 감소의 결과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기준, 일반 정규직 14명, 공무원 16명 총 30명이 연봉계약을 거부하고 있으며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기준으로 전 직원 교통보조비를 복원하고, 노동자 불이익을 해소하여 당해 연도 사업비 내 인건비 집행을 함으로써 2021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상위직제 신설에 따른 직급별 연봉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경영정책실장을 최상위직제 사무처로 조정함에 따라 자격요건과 함께 급여수준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성과급 지급 시에도 원장과 동일하게 공공기관장 성과평가 결과 등급을 적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 교통보조비 13만원은 아마 연봉에 넣었던 거 같아요. 근데 삭제를 한 것이 이제 규정에 위반이 돼서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하는 거 같아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했는데 동의절차가 생략되어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무처 직제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연봉액 상한선을 조정해보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 이사 강기정

사무처장의 상한선이 원장의 상한선과 일치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원장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 이사 이순중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해서 수당을 받더라도 원장보다는 낮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진흥원 위상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존의 연봉보다 원장이 많이 받으면 진흥원 원장 위상이 높아지면서 진흥원 자체 위상이 높아진다는 걸 꼭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해요.

○ 이사 권경주

제가 다른 자치단체 같은데서 보니까 사무처장의 뭉이라는 게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청소년 분야 및 사회복지 같은 직군, 아니면 같은 직렬 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것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정규직과 공무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정규직이 아닌 공무직도 있습니까? 전체 몇 명인가요?

○ 이사 박영의

아, 그럼요. 전체 중 37명이 정규직이고, 30명이 공무직이에요.

○ 이사 권경주

공무직이 30명이에요? 되게 많네.

○ 이사 이순중

그 전에는 사업에 따른 계약직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 이사 박영의

근데 일부는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 이사 김용찬

그런 건 같이 상의를 하셔서 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됐나요? 의결을 해도 될까요?

○ 이사 권경주

직원의 성과연봉 평정도 하나요? 다 하는 거예요? 임원들만 하는 거예요?

○ 이사장 김용찬

전체 다 하는 거예요.

○ 이사 박영의

성과급을 줘야 하니까요.

○ 이사 권경주

성과급에도 차등을 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이사 박영의

네네, 저희 기관은 다른 기업처럼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보다는 다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누구는 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고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요. 그러다보니 이 근무평정이 거의 이제 n분의 1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 이사장 김용찬

그럼에도 애쓰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엄격하게 가야죠. 그래서 년에 한 번씩 기관 평가를 하잖아요.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청소년진흥원 좀 많이 올라갔죠?

○ 이사 박영의

저희 평가요? 네, 평가 올라갔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성과 평가를 통해서 아예 연봉을 성과로 줄 수 없는지 그거지. 못 받으면 아예 그 성과급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합심하여 일을 잘 해내면 할 때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걸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의견 없으시고,

○ 이사 진상현

잠깐, 지금 36쪽에 보면 2급부터 4급이 나와 있는데 그 하한액도 사실 상당히 높게 되어있지 않나 싶고 또, 2급에서 4급을 쉽게 가를 수 있는 건지 싶네요.

○ 이사장 김용찬

직원들 급수가 다 나뉘어 있지 않아요?

○ 이사 박영의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급수가 없다는 생겼잖아요? 7급으로 생기면서 7급과 2급 간에 간격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 해서 하한선 자체가 되게 높아졌어요. 그 2급 하한액이 지금 4천 3백이고, 7급의 하한액 2천 4백이기 때문에 거의 뭐 2천 6백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2급, 3급, 4급, 팀장은 연한대로, 근무연한대로 이게 나뉘지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팀원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팀장 사이에서도. 정년까지 가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2, 3, 4급이 TO를 먼저 차지하면 능력 있는 팀원들이 올라갈 자리가 없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있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 이사장 김용찬

왜냐하면 인센티브도 저희가 장기 근속하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팀장이 처음으로 오면서 당연히 4급이 되는 거고, 성과를 내면은 3급으로 승진시켜 주는 거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요. 직급이라는 게 9급부터 2급까지 있잖아요. 9급에서 7급, 5급 승진하면서 단계에 따라 혹은 승진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승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개인의 성과도 유도할 수 있도록 또 경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차이도 또 있어야 해요. 팀장님이라고 다 똑같이 주려고 하면은 난 팀장이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뭐 인센티브도 없는데, 뭐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 동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력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주세요.

○ 이사 박영의

네, 저희가 이제 2급 TO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 이사장 김용찬

2급 TO가 두 명?

○ 이사 박영의

네, 2급 TO가 두 명인데 예를 들어 지금 팀장들이 여덟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뭐 능력이 있거나 성과를 내거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오래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승급심사가 없이 저희가 그냥 오래된 순서대로 2급, 3급, 4급을 설정했던 말이에요. 그럼 2급에서 이미 TO 하나를 누군가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60세까지 가니까 2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확률이 이제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이사장 김용찬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 이사 박영의

아, 인사위원회에서요?

○ 이사장 김용찬

인사위원회에서 정하시면 되는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위원이 부족하면 외부위원을 몇 분 모셔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인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위원장이고, 교수님하고, 교육감, 뭐 이런 분들이랑 같이 다 오거든요. 거기서 합리적으로 기준도 정하고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 이사 이순중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금년 언제부터죠?

○ 이사 박영의

2020년 1월부터요.

○ 이사 진상현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많이 해야 할 것이 사실은 그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진흥원 전체가 얼마 했다 해도 각 부서에 대한 평가는 없는거죠.

○ 이사 박영의

그렇게는 없죠.

○ 이사 진상현

그러니까 각 부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팀장이든 팀원이든

연봉 계약할 때 좀 반영된 것이 있어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2급이라고 해서 2급 기준 월급에서 딱 얼마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진흥원에서 보완을 해야할 것 같아요.

○ 이사장 김용찬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네요.

○ 이사 진상현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무직을 없애서 정규직으로 만들어 놓는 것에 찬성은 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이 자리에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개인 평가를 통해서 계속 밑의 점수를 받을 때는 권고사직도 할 수 있다 하는 조항도 사실은 집어 넣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이 분이 같이 갈 분인지, 중간에 가방을 싸야할 분인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직을 없애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봐요.

○ 이사장 김용찬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세요. 원장님께서 그 직위를 공무직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런 것이 좋고 그런걸.

○ 이사 박영의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강등이라든지 권고사직이라든지 뭐 이런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원 안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게 규정 안에 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원장님께서 고민해야 하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제 다 되셨나요?

○ 이사 일동

네.

○ 이사장 김용찬

네, 그래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7부의안건 임금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제8부의안건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제안 설명 해주세요.

○ 간사 남혜진

네, 8부의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8부의안건의 경우에는 조금 전 이사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6호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훈계 주의 관련 처분 규정이 들어오면서, 그것과 연동하여 근무성적평정 규정 내에 감점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감점의 기준은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별표1의 경고, 주의, 훈계 기준과 동일하게 0.5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감사과 권고사항에 따라서 규정에 반영하는 거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 이사 일동

없습니다.

○ 이사장 김용찬

의의가 없으므로 제8부의안건 직원평정규정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이제 9부의안건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제안 설명해주세요.

○ 간사 남혜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입니다. 도 공공기관 인사 조직 운영기준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임원 임명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으로는 원장추천위원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충청남도 노동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내용 첨부에 따라 노동자 이사에 따른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촉직 비상임 이사로 노동자 이사를 추가하고, 노동자 이사 임명 절차 및 연임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자격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의 전부개정으로 전문으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의 원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바꾸면서 노동자 이사가 추가됨에 따라 내용도 추가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제9부의안전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결의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네, 제10부의안전 공무원 파견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네, 제안 설명해주세요.

○ 간사 남혜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인사, 채용 등 중요도가 높은 업무의 구조화가

필요하고 실장직위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운영규정의 현실 반영도 및 완성도가 부족하여, 제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전 신축 기본계획 수립연구 진행 등 법인 이전 시기 도래에 따른 공무원 파견 요청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견 소요인원 6급 1명의 내용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사장 김용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진흥원에 제규정 제정할 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정리할 사항들도 많고, 또 우리 여성정책관님과 협의해야할 사항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싶어서 진흥원에서 공무원 파견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 파견 요청안을 원안대로 결의합니다.

의사 봉 3타

○ 이사장 김용찬

자, 이제 10건을 다 마쳤네요. 이사님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이사 일동

없습니다.



마무리

○ 이사장 김용찬

이제 정리를 할까요?

금일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사님들께서 잘 도와주시어 원활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사님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연말인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 2020년 12월 24일, 17시 40분 폐회한다.

위의 회의록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직 위	소 속	성 명	날 인	비 고
이 사	드림학교 교장	진상현		
이 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강기정		
이 사	행복드림요양원 원장	김장옥		



2020년 제7차 정기이사회

참석자 명부

일자 : 2020. 12. 24.(목)

연번	시간	성명	소속	호흡기 증상 (발열, 기침 등) ○ / ×	최근 2주 내 해외여행 유행지역 방문 여부 ○ / ×	체온 (°C)	동의 여부 ○ / ×
1	15:34	권경주	부산시립연극장	×	×	36.4	○
2	15:53	이동기	도청	×	×	36.4	○
3	〃	김용찬	〃	×	×	36.3	○
4		김장득	백석동	×	×	36.7	○
5		장기철	백석동	×	×	36.1	○
6		김상훈	드림하우스	×	×	36.5	○
7		김민서	연립	×	×	36.6	○
8		이승근	도청	×	×	36.4	○
9							
10							
11							
12							
13							
14							
15							